한국화가 류현자 작가는 엄마가 손으로 뜬 1200개의 수세미를 함께 전시한 '사모곡-마주보기'전을 열고 있다.

엄마 생각

한국화가 류현자 작가 '사모곡-마주보기'전
엄마가 뜨개질 한 수세미 1200개 전시
연꽃·목련 어우러진 조형미 돋보여
전시 관람객에 '엄마의 수세미' 선물

식당을 운영하던 86세의 엄마가 지난해 갑자기 쓰러졌다. 생활력 강하고, 활달한 분이셨기에 병상에 누워 쇠약해져만 가는 엄마의 모습에 딸은 마음이 아팠다. 시간이 날 때면 직접 손으로 뜬 수세미를 사람들과 나누곤 했던 엄마 모습이 떠올랐다. 하루 종일 기력이 없는 엄마에게 화가인 딸은 뜨개질을 권했다. 그가 색실을 사다주면 엄마는 이런 저런 색을 섞고 문양을 넣어 알록달록한 수세미를 떴다. 엄마가 뜬 수세미는 여기저기 나눠줘도 쌓여갔고, 엄마와 2인전을 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엄마, 우리 함께 전시할까?" 어느 날 던진 딸의 말에 엄마는 더 열심히 수세미를 떴고, 갯수는 1200여개에 달했다.

한국화가 류현자 작가가 엄마와 함께 '사모곡-마주보기'전을 오는 20일까지 갤러리 다온(광주시 동구 동계로 10번길 20-1)에서 열고 있다. 삶이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서로 마주 보며' 의지하고 살았던 마음을 담은 전시다.

엄마 송홍남 여사가 뜬 1200개의 수세미는 전시장에서서 멋진 설치 작품으로 변신했다. 류 작가는 엄마의 수세미를 '버선' 모양으로 배치해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시켰다.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버선 작업은 늘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고 종이 버선을 올려둔 뒤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던 엄마의 뒷모습에서 시작됐다. 그의 작업은 세상 모든 어머니에 대한 헌사이기도하다.

"엄마가 쓰러지고 나시니, 새삼스레 엄마가 여자로 보이더군요. 7남매 키우며 일과 집밖에 몰랐던 엄마셨어요. 수세미를 전시장에 모아두니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어요. 단순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말이죠. 엄마가 색깔을 이렇게 저렇게 배합해 떠낸 수세미들이 한 데 모이니 근사한 작품이 됐네요."

전남대 예술대학과 경희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25차례 개인전을 연 류 작가의 작품 속에 흐르는 건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다. 늘 희생했던 어머니의 삶은 작품의 주제가 됐고, '사모곡' 시리즈를 통해 진화해왔다. '사경(寫經)'을 주제로 작업을 시도했던 것도 역시 어머니 영향이다. 어느날 밤, 어머니가 연필에 침 묻혀가며 불교 경전 '금강경'을 한자 한자 써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본 그녀는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고자 사경을 시작했고, 그림과 배치해 작품으로 완성했다.

류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전통 버선의 조형미와 함께 어머니를 포함한 세상 모든 여성의 삶을 담은 연꽃과 목련 등 다채로운 꽃이 어우러진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오방색을 바탕으로 다채로운 작업을 진행해온 그녀의 작품은 부드러운 전체 바탕 색과 다완, 토기, 연꽃, 버선이 어우러져 색다른 느낌을 전한다. 또 색색의 물결 모양 띠와 다완, 연꽃과 버선이 어우러진 화폭은 다양한 감정을 전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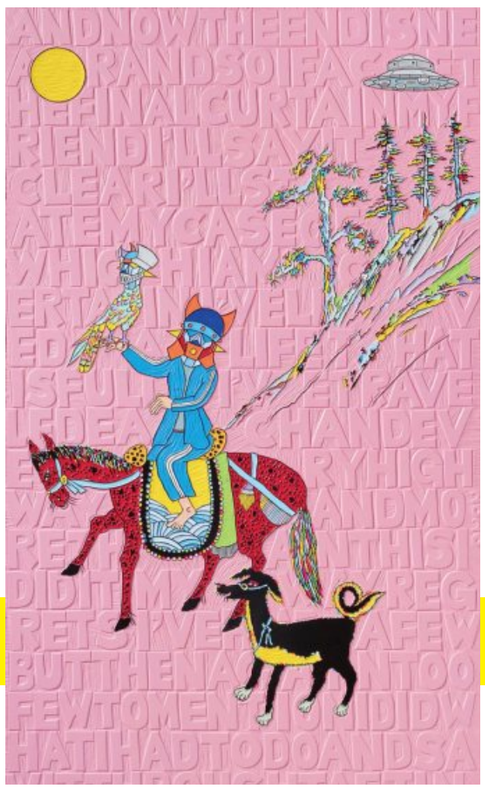
최근 작품에 등장하기 시작한 오방색의 '띠'는 인간사의 희로애락과 명상, 삶의 흐름을 표현하는 장치다. 앞으로 추상성을 더 가미해 '아리랑' 연작 시리즈를 시작해 볼 참이다.

그의 작품에는 분채가 주는 매력도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한지에 열번 가까이 색을 바른 작품은 자연스러운 색의 겹침이 만들어지면서 아련한 느낌을 전해준다.

"엄마가 오랫동안 쪽머리를 하시고, 버선을 신으셨는데 수년 전 다리를 다치시고 나서는 버선을 신지 못하셨어요. 엄마가 정성스레 뜬 수세미를 버선 모양으로 설치하고 나니 엄마에게 좋아하는 버선을 신겨드린 듯해 기분이 좋았습니다."

류 작가는 전시를 관람하는 이들에게 '엄마의 수세미'를 선물로 전해준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성태진 작 'My Way'

Robo Land

로봇 추억 6월 8일까지 아산조방원미술관

어릴 적 TV에서 만난 '마징가 Z', 멋진 발차기 실력을 자랑하던 '로보트 태권 V'.

유년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로봇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작가들이 어떤 영감과 상상으로 로봇을 재해석하는 지 살펴볼 수 있는 유쾌한 기획임과 동시에 기술 발전이 가져다 준 현재의 상황을 한번쯤 돌아보게 만드는 전시이기도 하다.

곡성 아산조방원미술관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획전 'Robo-Land:공진화를 위하여'를 오는 6월8일까지 개최한다. 전시에는 고근호, 김동인, 성태진, 양재영, 위재환 등 로봇을 주제로 작업하는 5명의 작가를 초청했다.

고근호 작가는 어릴적 추억의 로봇과 그것을 만들었던 기억으로 풀어내며 작품을 만든다. 대중적 아이콘이 지닌 팝적 요소와 조립로봇이라는 재미를 결합, 즐겁게 작업하며 버려진 폐품 역시 그의 주된 작업 소재다.

판화를 전공한 성태진 작가는 어릴적 영웅이었던 태권V에게 현재의 자신에게 이입한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유머러스하고 위트있는 작품 속 주인공은 현대인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며 화사한 색채가 어우러진 점도 특징이다.

양재영의 팝아트 조각은 TV 만화 속 캐릭터들을 레고나 프라모델 형식을 차용,

양재영 작 '깡통로봇 1976'

종이나 합판으로 제작한다. 단순한 조형성과 화려한 색채가 키즈적 감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환경문제 등에 대한 메시지도 상기시키며 사회적 발언도 시도한다.

꿈을 쫓고 유토피아를 꿈꾸는 이들을 등장시키는 위재환 작가는 지금도 좋아하는 로봇을 소재로, 현실에 대한 도전과 응전을 이야기하는 거대 로봇을 전시한다.

그밖에 창작 '나무로봇'을 만드는 김동인 작가가 선보이는 로봇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자연의 정령에 의한 지배를 받게 되면서 인간을 역으로 공격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매주 월요일 휴관.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폴리 5차 총감독에 서울시립대 배형민 교수 선임

광주폴리 5차 총감독에 배형민〈사진〉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선임됐다.

(재)광주비엔날레(대표이사 박양우)는 최근 이사회를 개최하고 제5차 광주폴리를 이끌어갈 총감독에 배형민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배 교수는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을 거쳐 메사추세츠공과대학(MIT) 대학원 건축학 박사를 마쳤다.

배교수는 제4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수석큐레이터(2011), 제14회 베니스비엔날레 건축전 한국관 큐레이터(2014), 제1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총감독(2017) 등을 맡았으며, 국내외에서 건축 역사가, 비평가, 큐레이터 등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배 교수는 제14회 베니스비엔날레 건축전 황금사자상(2014)을 수상했으며, 서울시립미술관 초청 큐레이터로 기획한 '기후미술관: 우리 집의 생애' 전시로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본상(2021)을 받았다.

배형민 총감독은 "광주폴리가 광주 곳곳에 30여 개의 작품을 선보이고 유지해왔다는 것은 광주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자산이라 생각한다"며 "광주폴리의 지역성을 확인하면서 기후 변화와 같은 전 세계적인 문제를 고려한 주제로 지속가능한 광주폴리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립합창단 '유쾌한 합창 나들이'

13일 상무시민공원·26일 쌍암공원 야외무대

'푸른 잔디밭에서 펼쳐지는 음악 피크닉'

광주시립합창단 수시연주회 '유쾌한 합창 나들이'가 오는 13일과 26일(오후 7시 30분) 각각 상무시민공원과 26일 쌍암공원 야외무대에서 열린다. 〈사진〉

첫번째 무대는 무반주합창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곡들로 독일 작곡가 헤르만 네케의 '크시코스의 우편마차'를 경쾌한 춤곡을 편곡한 것을 시작으로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로시니의 '윌리엄텔 서곡'을 들려준다.

두 번째 무대에서는 '신호등', '마법의 성'을 여성합창으로 연주하며 세 번째 무대에는 바리톤 윤찬성이 오페라 '카르멘'중 '투우사의 노래', 소프라노 장미화가 오페라 '잔니스키키' 중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테너 정기주가 리골레토 중 '여자의 마음'을 각각 들려준다.

이어 윤은주와 바리톤 이형기가 함께 무대에 올라 영화 알라딘 OST 중 'A Whole New World'를 들려주며 낭만적인 밤을 선사한다. 다섯 번째 무대는 테너 유정석, 바리톤 김대성과 손승범이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중 '지금 이 순간'과 'O Sole mio', 'Nessun Dorma' 등을 통해 남성중창의 매력을 선보인다.

지휘는 이준 광주시립함창단 부지휘자가, 진행은 김두식 광주MBC아나운서가 맡는다. 아울러 재즈밴드 라디안 팩토리가 생생한 라이브 연주를 들려준다. 전석 무료. 문의 062-415-5230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오스트리아 빈 모차르트의 집

"유럽여행, 테마로 떠나요"

광주재능기부센터복합공간, 26일부터 무료강좌

'해외여행, 떠나볼까.'

코로나 19로 인한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해외여행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광주재능기부센터복합문화공간(광주시 북구 설죽로 203 화인빌딩4층)이 오는 26일부터 10회 일정으로 '테마로 떠나는 유럽여행10' 무료 영상 강좌를 진행한다.

이번 강좌는 선호도가 높은 유럽 10국가를 선정, 테마를 정해 사진여행 가이드 형식으로 진행한다. 해당 국가의 역사와 문화예술 해설까지 곁들여 현장감 있게 진행되는 강좌로, 김재훈 국제문화해설가가 매주 목요일 약 1시간 동안 진행한다.

여행지는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그리스, 이스라엘, 터키, 오스트리아, 폴란드, 네덜란드다.

첫 강의는 오는 26일 오후 7시 프랑스편으로 '나폴레옹 스스로 황제관을 쓰다'가 주제다.

이어 '시저-나는 모든 것 다 가진 남자?'(이탈리아 로마), '가우디-곡선은 신의 영역'(스페인 바르셀로나), '600배 부유한 페르시아를 이기다'(그리스 아테네), '3대 종교 성지가 중동 화약고?'(이스라엘 예루살렘), '솔로몬을 울린 성소피아 성당'(터키 이스탄불) 등 다채로운 주제의 강의가 진행된다. 문의 062-400-2882.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